

사회복지학의 통합적 접근

-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이중구조 분석과 통합적(정합적) 발전 전망-

오 정 수 (충남대 교수)

1. 머리말

이 글은 사회복지학의 통합적 접근¹⁾을 주제로 사회복지학에 있어 학문의 접근방법으로서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 간의 대립구조를 분석하고, 양 접근방법의 통합적 또는 정합적(整合的)²⁾ 발전의 전망을 다룬다. 여기에서 학문 접근방법이란 이론과 실천의 학문체계상 분석수준 또는 실천수준에 관한 내적 분류체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통합적 접근의 개념은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의 학문 접근방법 간의 유기적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학문체계³⁾ 내에서의 내적 일치성을 제고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복지학에서 학문 접근방법으로서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통합에 적극적인 입장에서 보면, 거시와 미시의 대립구조는 학문집단 내의 반목과 의사소통의 장애와 학문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학문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나아가 이 논의는 거시와 미시 접근 간의 유기적 관계를 강화함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 “이를 어떠한 관계로 정립해야 하는가?” 라는 방법론에 논의의 초점이 있다. 그러나 통합에 소극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논의는 학

- 1) 통합적 접근의 개념은 사회복지학의 이론(theory), 연구방법(research method), 학문접근방법(approach), 실천방법(practice method) 등에서 각각 다른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론에서의 통합적 접근은 이론적 분석틀-가령 복지국가의 발달을 설명하는 변수들을 묶어주는 이론적 틀-을 의미하며, 연구방법의 통합은 실증주의 연구방법과 비실증주의 연구방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을, 학문접근방법의 통합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의 유기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천방법의 통합은 개별지도, 집단지도, 지역사회조직을 묶은 일반주의적(generalist) 실천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합적 접근의 개념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른 각각의 상이한 의미에 유의함이 요구된다.
- 2) '통합적'(統合的)이라는 의미는 접근의 각 요소들이 일체성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주1에서 실천방법 통합의 예에 가장 적합하다. 반면, '정합적'(整合的)이라는 의미는 각 요소들을 접목(接木)한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 따라서 거시와 미시와의 새로운 관계의 설정이라는 의미에서 정합적 접근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이 글에서는 주어진 주제의 용어에 따라 '일체성'이라는 의미는 유보하면서 '통합적 접근'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 3) 연구대상, 연구방법, 이론체계로 구성되는 학문의 내적 구성요소와 이들간의 상호관련체계.

문제계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된다. 사회복지 현상연구와 전문직 양성은 별개의 학문 목표로서 구분되어야 하며, 나아가 학문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이 입장의 논리적 근거이다. 즉 “사회정책학과 임상사회사업학(또는 사회사업실천 방법론)이 학문으로서 사회복지학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내에 공존공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극단적으로는 각각 ‘각자의 울타리’를 만들어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는 문제제기에 논의가 집중된다.

한국사회복지학은 태생의 초기부터 학문영역의 독립성이 강한 미국 사회복지학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학문으로서 두가지 접근방법이 공존하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사회과학 계의 지적 분위기의 변화 속에서 대외적으로는 미국 사회복지학의 특성과 다른 유럽대륙 학문의 수입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국내적으로는 사회과학 일반의 통합연구 경향과 진보적 사회과학의 학술활동 증가 등으로 연구자의 입장이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학문 분업형태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간 학문영역의 분리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이러한 논의의 배경이 된 학문 내적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들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학 연구자의 학문적 관심이 분화되었다. 이에 따라 학문 접근방법의 선호도가 다양하게 분화되었다는 점. 둘째, 학계 내의 학문집단과 대학의 학문적 정향이 분화되었다. 학회의 다양한 분화가 이루어졌으며, 대학의 특성화에 따라 대학의 학문접근방법에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 셋째, 사회복지학의 연륜이 쌓이고 인접학문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연구자들이 전문직의 응용지식과 기술에 대한 기존의 관심 외에 사회복지 현상 연구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어 학문의 이론 지향성이 강화되었다는 점 등이다.

그리고 학문 외적요인으로는 이 시기에 사회복지 부문이 국가적으로 정책과학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하면서 재정학, 행정학, 사회학 등 인접 사회과학에서도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심리학, 교육학 등 행동과학에서도 사회복지의 일부 영역을 관심 있게 다루게 되었다. 이러한 인접 사회과학의 영향은 사회과학의 일반적 접근의 필요성을 대두시켰고 이러한 경향에 호의를 가진 학자들을 중심으로 경계가 모호한 사회복지라는 관습적 연구영역에 얽매이지 않고 인접 사회과학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학문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식이 고양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대학교육개혁에 따른 학부제 도입의 경향이 새로운 변수가 되어 학문접근방법의 통합 또는 전문화 논의에 더욱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 학계 내부적으로는 외부로부터의 학문영역 감식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심도있는 학문의 질적 눈높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된 학문영역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연구자들이 미시와 거시의 양 영역에서 증가하여 학회의 분화가 촉진되었다. 사회보장학회, 사회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학회, 임상사회사업학회 등의 등장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체계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제기가 학문 반세기의 역사를 지닌 사회복지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일시적 상황변화의 현상이기 보다는 사회복지학의 학문 성격과 사회과학계의 지적 토양이 결합하여 발생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사회복지학의 학문범위에 관한 분명한 합의가 도출되어 한국사회복지학의 정체성으로 정립되지 못한 사실과 따라서 사회복지학의 학문체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학문의 현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제

기 자체를 학문의 범위와 접근방법, 정체성에 관한 학문의 성숙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적극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논의를 소모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일천한 한국사회복지학의 역사에 비추어 한국 사회복지학이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광복 50년 또는 해방 50년을 화두로 국내의 각 학문분야에서 반세기 동안 일구어온 학문의 업적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비록 이러한 역사적 의미의 화두를 전제하지는 않았지만⁴⁾ '95년에 이어 사회복지학의 학문본질의 주요 쟁점인 학문 접근방법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학문 반세기를 향한 학회와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시의에 적절하고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사회정책과 임상사회사업으로 접근방법을 구분하는 분류방법은 연구영역을 초점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연구방법과 이론체계에까지 연계되어 있는 학문체계상의 복합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난 '95년 한국 사회복지학회의 사회복지학 진단과 정체성 논의의 동일한 연장선 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논의가 학문의 일반적 성격에 관한 것이라면, 금번 논의는 학문의 본질에 보다 깊이있게 다가선 접근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즉 한국사회복지학이 학문의 정체성을 갖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학의 독자적인 학문 접근방법이 어떠한 형태로 정립되어야 하는가에 논의의 초점이 있는 것이다.

논의의 순서는 우선 II절에서 사회복지학 접근방법 이중구조의 문제를 한국사회복지학사의 역사적 배경과 문제제기의 상황을 예비적으로 고찰하고, III절에서 한국에서의 이러한 접근방법 논의가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 문제인가 또는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을 지닌 문제인가를 논하면서 이를 기초로 한국사회복지학 학문의 현재 수준에서 학문 접근방법 논의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고찰한다. IV절에서는 한국사회복지학의 발전에서 나타난 학문 접근방법의 쟁점들을 대립되는 입장들을 대비시켜 그 의미를 논한다. V절에서는 학문체계와 접근방법의 분류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 접근방법을 어떻게 정합시켜 나갈 것인가의 주제를 다루며, VI절에서 통합적 접근의 연구방법과 이론체계에 대한 함의를 다룬다. 따라서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I절-IV절은 이중구조의 분석(analysis)이며, V절 이하는 그 처방(prescription)으로서 대안의 분류방안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다루고 있다.

II. 학문 접근방법의 이중구조

1. 이중구조 형성의 사적 배경

- 4) 최근까지 해방50년, 광복50주년을 화두로 사회복지 부문에 대하여 학문적 진단이 이루어진 학술모임은 다음과 같다. 광복50주년기념학술대회논문집, 한국사회보장학회(1995.5); 학술단체협의회.한겨레신문사, 해방50주년기념학술대회논문집, 『한반도통일국가의 체제구상』,한겨레신문사(1995.10), 김연명.김형식, “통일국가의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해방50주년과 사회복지 특집”, 『상황과 복지』 창간호(1996.4.).

학문 접근방법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성과 동태성을 지닌다. 한국사회복지학의 발전과정에서도 학문 접근방법 상의 이중구조가 형성되어온 동태적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역사적 접근을 통한 논의의 실익은 한국사회복지학의 수준과 학문 접근방법의 현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바람직한 학문체계의 정합적 구조를 발전적으로 정립함에 시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문 도입기(1950년대-1970년대)에 우리 학계의 초기 연구자들에게는 학문 접근방법 상의 분화가 적었다. 연구자의 학문 배경이 다양화되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연구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각 연구자에게 거시와 미시를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입이 요청되었다. 특히 미국 편향의 미시적 접근방법 중심의 학문수입이 이루어졌으나 이것이 한국사회에 적합한 접근방법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의 여유가 없었다. 사회사업가의 이념적 정향을 분석한 최일섭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당시의 사회복지이론과 한국사회의 현실 간의 불일치 현상을 보여주었다.

“사회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거시적인 견해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한국사회사업가들이 실제 면에서 미시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념관과 실무 면에서의 불일치성의 원인으로서는 들 수 있는 것은 현 한국의 사회사업기관의 서비스방향과 사회정치적인 체제가 극히 보수적(미시적)이어서 사회사업가로 하여금 그들의 이념관에 맞는, 다시말하면 거시적인 서비스를 주는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⁵⁾

따라서 당시 한국사회의 현실에 적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복지의 거시적 이론에 의한 한국사회 현실의 분석, 개발과 적용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학문 형성과 확대기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대에 이르러 학문 접근방법이 분화되었다.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구분이 연구자들의 연구물에서 분명하게 구분되었다. 사회복지학회지를 중심으로 분석한 최균의 연구는 거시적 접근의 연구영역 확대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⁶⁾ 그리고 연구자의 학문 배경이 다양화하였으며, 미국일본도의 미시적 학문수입에서 벗어나 영미와 유럽대륙의 거시적 학문전통이 동시에 유입되어 공존하게 되었다. 또한 이론지향성과 실천지향성이 강화되었다. 한국현실에서의 이론의 적용과 개발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욕이 고양되었으며, 그리고 사회복지현장의 확대와 함께 실천은 보다 토착성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과 실천지향성의 강화는 나아가 이론과 실천간의 상호 연계성에 대한 요구의 증대로 나타날 것이다.

1990년대는 학문 접근방법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이란 전통적 분류방법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공감되고 있고 이러한 분류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접근방법의 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1995년 학회를 계기로 학문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접근방법을 포함한 학문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이루어지는 학문의 성격과 접근방법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형성과 미래의 사회복지학 학문발전 모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최일섭, “사회문제 분석에 있어서 한국사회사업가들의 이념관 연구”, 『사회사업학회지』 창간호, 한국사회사업학회, 1979, p.7.

6) 최균, “한국사회복지학 연구의 분석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을 진단한다』, 199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1995.4., p.3.

2. 학문 접근방법의 이중구조

위와 같은 한국사회복지학의 발전과정에서 학문 접근방법 상 거시와 미시의 이분법이 한국사회복지학의 체계 내에 자리잡게 된 경위는 한국사회복지학사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요하지만, 이 분류형태는 사회현상의 설명에 있어 사회구조와 인간행위를 나누는 사회과학의 이중구조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학이 발전하여 오면서 이 분류의 틀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사회복지학의 학문체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공감되고 있다. 특히 사회구조와 행위가 결합하는 정책과정과 프로그램 실천과정 등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접근방법의 분류형태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반성이 없이 거시-미시의 이분법은 대학교수의 충원, 교과과정과 연구자들의 인식구조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학문수입의 본원지인 미국, 영국에서도 이러한 이분법은 이미 폐기되었고 학문체계와 교육, 실천에서 새로운 형태의 접근방법이 도입되었음에도 우리 학계는 아직 적극적인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분법의 대립구조는 다음의 세가지 요인에 근거를 두고 분과학문간의 의사소통의 결핍으로 상호대립의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서,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1) 가치관의 차이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이란 접근방법의 차이를 가져오는 첫번째 요인은 연구자의 가치관의 차이이다. 사회과학이 가치와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에 기초하여 사회복지학 연구자들의 이념적 정향을 분류하면, 거시 분야와 미시 분야 연구자들의 입장은 모두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의 이념적 연속선 상에 분화되어 나타난다. 사회정책에서 경제적 효율을 강조하는 입장과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는 입장이 대립하는 것과 같이, 사회사업에서도 인간의 문제를 개인의 심리사회적 문제로만 보는 전통 사회사업(traditional social work)의 입장과 인간의 문제를 정치적 요인이나 구조적 문제로 보는 급진사회사업(radical social work)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복지계는 우리 사회의 정치이념의 한계 속에서 학문의 이념적 분화가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특히 사회사업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여 미국식 전통사회사업의 입장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복지 연구자들의 이념적 입장을 다소 비판을 감수하고 거칠게 분류하자면, 거시적 접근방법은 상대적으로 집합주의의 입장을, 미시적 접근방법은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차이는 이념과 가치의 차이에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식론과 연구방법의 차이와도 관련되어 있다. 객관성과 가치중립성(몰가치성)을 믿는 입장은 경험주의 또는 실증주의 연구방법을 선호하게 되고, 가치관련성을 신봉하는 입장에서는 실증주의의 대안으로 주관적 요소를 강조하는 해석과학(hermeneutical science)이나 비판이론(critical theory)⁷⁾적 연구방법을 선호하게 된다.⁸⁾ 행동주의적 지

7) 비판이론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두가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Horkheimer, Marcuse, Habermas 등의 이론가가 맑시즘의 일정한 영향 하에 권력, 갈등, 사회구조 등의 개념을 심리분석의 요소(의미, 해석)와 결합한 이론을 의미한다. 반면, 넓은 의미에서는 광범위한 정치, 사회적 요인을 해석학적 (또는 현상학적) 이슈와 결합한 일련의 이

향의 학문을 하는 연구자는 대체적으로 실증주의를, 구조주의적 지향의 학문을 하는 연구자는 대체적으로 비실증주의 연구방법을 선호하게 된다. 이중 후자의 입장은 전자의 입장이 지배권력의 시녀이며 자본주의체제에의 맹목적 종속성을 지닌다고 비판한다.

2) 연구방법과 인식론의 차이

사회복지학은 학문형성의 초기부터 경험주의 방법을 기반으로 하였고, 따라서 20세기 후반에 미국 학계를 풍미한 실증주의(positivism)와 쉽게 결합하여 사회사업, 사회복지정책, 행정 분야에서 적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초 미국 사회복지학에서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⁹⁾이 대두한 이후, 이미 약간 앞서 진행된 과학철학과 주류(main stream) 사회과학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학문 연구방법의 장점과 한계를 인정하는 인식론적 다원주의(epistemological pluralism)의 경향으로 가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회사업) 리서치에서 양적 접근(quantitative approach), 질적접근(qualitative approach), 자연주의 접근(naturalistic approach), 해석적 접근(hermeneutical approach) 등 다양한 모델을 수용하는 것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거의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거시와 미시 간에 인식론 또는 연구방법상의 배타적인 차이는 찾기 힘들지만, 앞의 가치관의 차이와 상호 관련되어서 규범주의, 비판이론과 해석과학의 입장은 거시 분야에서 보다 많이 활용되고, 실증주의의 입장은 미시 분야에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우리의 학계에서는 1980년대 이후 양적 방법의 사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연구방법의 개발과 적용이 충분하게 성숙한 단계에 있지 않고, 거시와 미시간 연구방법론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 간의 대립도 극명하게 노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구방법과 학문의 수준이 성숙하여지면 이러한 인식론의 대립과 갈등이 표출될 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 학문접근방법과 연구방법간에 일관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은 없지만,

론적 분석을 의미한다. 연구방법상 비판이론은 이중 후자를 지칭한다. Neil Thompson, *Theory and Practice in Health and Social Welfare*,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95, p.45.

8) Ibid., pp.43-46.

9) 미국의 사회사업 분야에서 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간 연구방법의 논쟁은 1980년대초 이 분야의 대표적 Journal인 *Social Service Review*와 *Social Work*을 통하여 전개되었다. 논쟁에 참가한 학자와 논문은 Heineman(1981), "The Obsolete Scientific Imperative in Social Work", *Social Service Review*, 55(3), Pieper(1982), "Debate with Author: Author' Reply", *Social Service Review*, 56(2), Schuerman(1982), "Debate with Author: The Obsolete Scientific Imperative in Social Work", *Social Service Review*, 56(1), Geismar(1982), "Debate with Author: Comments on The Obsolete Scientific Imperative in Social Work", *Social Service Review*, 56(2), Gyarfas(1983), "Debate with Author: The Scientific Imperative Again", *Social Service Review*, 56(1) Hudson(1982, 1983), "Scientific Imperative in Social Work Research and Practice", *Social Service Review*, 56(2), "Debate with Author: Author' Reply", *Social Service Review*, 57(2), Fischer(1981), "The Social Work Revolution", *Social Work* 26(3), Gordon(1983), "Social Work Revolution or Evolution?" *Social Work* 28(3) 등을 참조하시오.

대체적인 분류를 하자면, 미시분야의 행대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는 입장은 실증주의를, 구조주의 접근을 강조하는 거시분야는 비실증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그 예이다.

3) 토착성의 문제

거시와 미시의 이중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세번째 요인은 토착성의 문제이다. 미시적 접근방법은 미국 학문의 무비판적 수입과 종속성,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의 결여, 한국현실에 적합한 실천방법론의 개발 부족 등 비판을 받아왔다. 거시 접근방법도 사회복지가 '경제논리'에 종속된 한국상황에서 규범적 논의와 당위성에만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실천적 측면에서의 분석 및 문제해결 능력과 기여도에 있어 의심을 받아왔다. 이와같이 토착성의 문제를 둘러싼 상대방의 약점에 대한 상호비판(외부로부터의 비판을 포함하여)은 학문의 토착화를 위한 인식 확산에 촉진적 역할을 하였지만 거시와 미시 간의 대립적 이중구조의 골을 더욱 깊어지게 하였다.

III. 학문 접근방법 논의의 토착적 성격

거시-미시 이중구조의 극복을 둘러싼 사회복지학 학문 접근방법의 통합/분리 논의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함으로써 그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사회복지학의 학문 접근방법의 새로운 정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이 논의는 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성격으로 인하여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일반성의 문제인가?

둘째, 이 논의는 연구자가 속한 국가나 지역 또는 학문공동체(academic community)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토착성의 문제인가?

셋째, 한국사회복지학에서는 이러한 학문 접근방법 논의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1. 논의의 일반성 관점

첫째, 학문 접근방법 논의를 일반성의 문제라고 보는 경우는 연구자가 속한 국가나 지역의 차이와 관계없이 이 문제가 사회복지학의 학문 성격상 항상 보편적으로 제기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다학문성과 이론적 절충성이라는 사회복지학의 특성은 실용적 문제해결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편리한 지적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학문의 이론체계를 수립함에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사회복지학은 연구문제, 이론체계의 광역성, 포괄성으로 인하여 내부적으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간의 차이가 뚜렷하여 이러한 접근방법 간의 차이가 사회복지학 학문 내에서 불가피하게 양 접근방법 간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가령, 빈곤문제의 경우, 연구문제로서 국가의 제도, 정책과 개인, 가족을 동시에 다루고 이론체계상 사회구조적 접근과 심리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어 동일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질적인 학술과 실천상 접근방법의 차이가 뚜렷하여 학문의 분리 논의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타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사회복지 학문에서 거시와 미시를 포괄하는 광역의 경계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부정되는 한, 첫번째 질문에 대한 잠정적 해답은 접근방법 통합/분리 논의의 일반성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2. 토착성의 관점

학문 접근방법 논의가 ‘국가적, 지역적 토착성의 문제인가’ 라는 두번째 질문의 경우는 연구자가 속한 국가나 지역의 학문적 특성이 학문 접근방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접근방법의 통합에 관한 논의도 결국 특정 국가의 토착적 현상이라는 관점이다. 즉 학문 접근방법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첫번째 토론에서 필자는 이 논의의 보편성을 부정하였다. 즉 학술적으로 아무리 그 보편적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특정국가에서 관습적으로 사회복지의 개념이나 학문의 범위가 규정된 경우 학문의 접근방법도 일정한 방향으로 규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거시와 미시의 접근방법은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어느정도 집단적인 학문공동체(academic community)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역적 패러다임(paradigm)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⁰⁾

어떤 특정한 학문공동체에서는 한국에서 일컫는 이른바 미시적 접근의 사회복지학과 거시적 접근의 사회복지학이 각각 다른 학문의 범위(boundary)에 속하는 별개의 학문분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 영역간의 교류는 사회과학 내의 학제간(interdisciplinary) 교류로서 인식된다. 이것은 사회복지라는 학문영역이 독립된 학문영역으로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예는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대륙의 각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사업과 같은 미시적 접근은 사회교육 분야에 속하며, 사회정책과 같은 거시적 접근은 사회학이나 경제학에 속한다. 이것은 사회과학 일반의 포괄적 접근을 강조하고, 학문의 실용성 보다는 학술성을 학문의 분류의 기준으로 삼는 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다른 학문공동체에서는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이 하나의 학문범위 내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양 영역 간의 교류는 독립된 단위학문 영역 내의 내적(innerdisciplinary) 교류로 인식된다. 이것은 위의 경우와는 달리 사회복지가 독립된 학문으로서 뿌리를 내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앵글로색슨계 국가로서 사회정책의 거시적 접근과 사회사업의 미시적 접근은 하나의 독립학문 내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것은 사회과학 일반의 포괄적 접근이 별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고, 학문의 학술성 못지 않게 실용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학문 접근방법의 통합 논의를 지역적 토착성의 문제로 보는 경우에 나타나는 두가지 국가군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대학의 발전과정과 학문적 특

10)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70; 김명자 역, 『과학혁명의 구조』, 동아출판사, 1992, pp.31-32.

성을 반영한다. 여기에서 학술주의(academism)의 전통이 강한 유럽대륙 국가군의 경우는 사회복지 학문의 광역성이나 포괄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거시와 미시를 통합한 사회복지 학문의 독자성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후 전문주의(professionalism)가 발전한 앵글로색슨 국가군의 경우는 대다수 대학에서 사회복지 학문의 포괄성을 인정함으로써 그 독자성도 강조되고 있다.

학문 접근방법의 토착성은 이러한 두가지 국가군 범주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동시에 개별 국가의 사회복지 학문 접근방법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배경도 특수성의 또다른 측면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학이 생성된 과정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각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문의 성격과 접근방법에는 어느 정도 차이는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경제성장의 단계와 수준, 인접 사회과학 학문의 성격과 성숙도, 도입된 외래 학문의 성격 등은 각 국가의 사회복지 학문의 특수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학의 접근방법에 역사성이 있다는 것은 구미 국가들의 사회복지 발전과정에서 쉽게 확인된다. 사회사업의 방법이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태동되어 20세기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사회사업이론으로 발전되었던 반면, 정책적 접근방법은 대체로 이차대전 이후 복지국가형성과 확대과정에서 영미와 대륙의 국가들에서 학문으로서 정립되었다. 한국의 사회복지학의 형성과정에서도 이러한 역사성과 특수성이 나타나며, 이 주제는 제II절에서 논한 바 있다.

위의 토착성 논의에서 국가군의 분류는 학술성과 전문성의 문제이며, 또한 사회복지 학문의 포괄성, 광역성을 수용하느냐 또는 이를 수용하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즉 학술성 지향의 학문공동체는 사회복지 학문의 포괄성, 광역성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이고 전문성을 지향하는 학문공동체는 이를 인정하는 경우이다. 다시 언급하면, 사회복지학문 접근방법 논의의 보편성은 개념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학문의 포괄성, 광역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 접근방법의 토착성은 국가군, 학문공동체, 또는 개별 대학별로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하겠다.

3. 한국사회복지학의 상황

다음, 한국사회복지학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 글의 머리말에서 언급한 한국의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유럽대륙국가군과 영미국가군의 각각의 지역적 토착성을 지닌 학문적 접근방법이 함께 유입되어 혼재함으로써 일어나는 혼란이다. 유럽대륙의 학문 전통에서는 사회복지학이 인접 사회과학의 다수 분과학분 내에 산재하여 존재하는 반면, 영미의 학문전통에서는 사회복지학이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존재한다. 한국의 사회복지학은 초기에 미국의 사회사업학을 받아들여 학문의 기초가 성립되었으나 이후 대륙 학문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에따라 두가지 학문전통을 배경으로 독자적인 한국의 사회복지학의 전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학문 접근방법의 토착적 구축에 의한 정체성 확립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학문의 정체성은 이와 같이 학문 접근방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금번 '96 학회의 학문 접근방법의 논의는 이러한 한국사회복지학의 정체성 정립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기된 문제라고 판단되며, 특히 영미 전통의 학문과 유럽대륙전통의 학문이 가진 상이한 특수성이 사회복지학을 포괄적인 학문으로 인식하는 한국의 고유한 학문풍토의 특성과 결합하여 초래된 혼란

이라고 할 수 있다.

IV. 거시-미시 접근방법의 쟁점들

학문 접근방법의 논의는 몇가지 대립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통합의 입장과 분리의 입장이 서로 상충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반드시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상호 침투하는 경향도 있으나 논의의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통합과 분리의 입장을 하나의 이상형(ideal type)으로 제시한다. 한국사회복지학 접근방법 논의의 핵심이 되는 기본적인 쟁점은 이론과 실천의 내적 일관성에 관한 것이며, 부수적 쟁점으로는 학술성 대 문제해결성, 학문의 분업과 협업, 학문의 상호의존성과 분과학문성이 있다.

1. 내적 일관성과 외연-인간욕구의 통합성에 기초한 복지활동 탐구

사회복지학이 이론과 실천상 내적일관성을 가지느냐의 문제는 학문의 정체성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슈이다.

이론적 내적 일관성과 관련하여 사회과학의 이론적 딜레마의 한 가지는 구조(structure)와 행위(action)의 이분법에 있다.¹¹⁾ 사회현상의 이해에 있어 인간행위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과 인간행위에 대한 사회구조의 영향을 강조하는 입장은 사회과학 이론의 지속적인 딜레마였다. 구조와 행위를 결합한 Anthony Giddens의 구조화이론(structuration theory)이나 구조와 행위의 다양한 이론적 입장을 수용하는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조직이론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다원주의 관점은¹²⁾ 이러한 이론상의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에 의하여 사회과학의 이론적 딜레마의 본질이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¹³⁾

사회과학의 이론적 딜레마는 사회복지학의 이론적 접근방법에도 내재되어 있다. 사회복지의 정책적 접근은 사회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사회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입장이며, 임상적 접근은 인간행위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학의 접근방법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행위간 이론적 딜레마의 문제는 사회복지학에서만 고유한 것이 아니며 사회과학 전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딜레마가 학문의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가령, 사회학에서 위의 두가지의 대립하는 이론적 입장이 그 자체로서 학문의 통합성이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사회복지학은 사회학의 미시, 거시 이론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정치학, 경제학, 미시적으로는 심리학 등 다수의 인접학문과 이론적으로 접목되어 있어 양 방향으로부터의

11) Anthony Giddens, *Sociology*, 2nd ed., Oxford: Polity Press, 1993, p.718.

12) Walter W. Powell and Paul J. Dimaggio, ed.,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 Analysi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91.

13) Alan Swingewood, *A Short History of Sociological Thought*, Macmillan, 1991, pp.311-2.

타 학문의 영향으로 구조-행위의 이분법에 의하여 거시와 미시로 분열되는 경향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이중성의 딜레마는 응용사회과학으로서 사회복지학에 있어 고유한 문제는 아니지만 학문체계상의 매우 민감한 이슈임이 분명하다. 사회복지학이 응용분야에 관심 영역을 한정시킬 때에는 이러한 딜레마가 잠재되어 있을 뿐이다. 실천이론체계로서 사회복지학이 이러한 딜레마에 노출되어지는 경우는 순수이론 분야와 학문적 교류가 깊어지면서 학문적 관심영역이 순수영역으로 확대될 때이다. 즉 순수와 응용과의 경계에서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회복지학이 사회학 등 순수사회과학과 구분되는 정체성을 갖느냐의 의문은 사회복지학이 독립학문(discipline)이나 또는 분야(field)에 불과하나의 논쟁으로 나아간다. 영국의 사회행정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이러한 류의 논쟁¹⁴⁾이 한국의 사회복지학에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한국사회복지학의 상황은 치열한 논쟁의 과정이 생략된채 대체로 광역 사회복지학의 독립학문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¹⁵⁾

응용사회과학인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논의에서 보다 본질적인 이슈는 구조-행위의 딜레마, 순수와 응용의 갈등 보다는 사회복지학 고유의 내적일치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다. 사회복지학이 이론적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은 Wilensky와 Lebeaux가 '기능적 일반화'¹⁶⁾라고 표현한 인간육구의 통합성에 근거하여 사회복지학이 개발한 고유한 개념(own terms)적 도구와 이론으로써 학문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Wilensky와 Lebeaux의 관점을 따르면, 소득보장, 보건, 주택, 교육, 대인사회서비스 등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분야가 사회복지라는 하나의 경계(외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충족되어야 할 인간육구(human need)가 기능적 일반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영국 사회행정학의 정체성 논의에서 독립학문성을 주장한 Carrier와 Kendall도 인간육구에 기초한 사회의 복지활동 탐구를 사회행정학의 고유한 학문주제로 보고 있다.¹⁷⁾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 인간육구를 충족하는 인간서비스(human service)의 요소가 강화될 때 미시와 거시의 이론적 실천적 통합성은 제고될 것이다. 사회복지학의 이론이 인간서비스의 요소에서 멀어질수록 순수사회과학에 가까워지며 이러한 경향은 거시와 미시 사회복지학의 양 영역에서 동시에 나타난다. 통합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 학문의 경계를 인간서비스에 기초한 응용분야에 둔다. 그러나 인간서비스 요소의 한계가 자로 재듯이 명확하게 그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복지학의 외연이 확대될수록 학문의 내적일관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인간육구의 기능적 일반화 외에 사회복지학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보다 유용한 개념이 개발될 수 있다면 사회복지학의 고민은 보다 줄어들겠지만, 보다 나은 개념과 이론을 개발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학문과제일 뿐이다.

결국, 통합의 입장은 '인간육구의 통합성과 이에 기초한 사회의 복지활동'이라는 다소 모호한 개념에 기초한 내적 일관성의 유지에 보다 많은 강조점을 두고 사회복지

14) 김상균,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대출판부, 1987. 제3장 사회정책학과 사회정책발달론.

15) 이해경,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한국사회복지학을 진단한다』, 199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1995.4., p.67.

16) Harold Wilensky and Charles Lebeaux,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New York: Free Press, 1965, pp.122-8.

17) John Carrier and Ian Kendall, "Social Administration as Social Science", Helmuth Heisler ed., *Foundations of Social Administration*, Macmillan Press, 1977, p.27.

학의 독립학문성을 인정하는 반면, 분리의 입장은 구조와 행위라는 사회과학 본질의 이론적 딜레마로부터 해방되려는 노력에 보다 많은 강조점을 두고 광역사회복지학의 독립학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와 행위의 딜레마가 사회복지학 고유의 딜레마가 아니며, 광역 사회복지학의 독립학문성이 대체로 인정되는 한국의 토착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분리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타당성이 적어 보인다.

2. 학술성 대 문제해결의 실용성

(1) 통합(정합)의 입장: 이 입장은 사회복지학의 학문목적이 기본적으로 문제해결 지향성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복지 학문은 문제해결방법의 개발에 치중해야 한다고 본다. 문제해결 지향의 실용주의 학문 전통은 미국 사회사업학과 영국 사회행정학에 동시에 근원을 두고 있다.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거시와 미시의 가능한 모든 학문적 접근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거시적 접근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사회문제 해결능력이 있고 미시적 접근도 나름의 고유한 사회문제 해결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시와 미시의 양 접근방법은 문제해결성이라는 측면에서 친화성을 지니고 있고, 이들을 포괄적으로 사회복지 학문 내에 수용함이 학문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통합의 입장이다. 순수사회과학과 응용사회과학이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 실용주의 학문의 창시자 Dewey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복지학이 순수사회과학의 일정한 영역을 포함하는 것도 당연시된다. 그리고 실용주의적 사회복지학이 '이론의 부재' 혹은 '이론의 저급성'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학술성 보다는 문제해결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학은 이론에 약점을 지닌 것이 아니라 이론 지향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언급된다.

(2) 분리의 입장: 사회복지학이 실천사회과학이라고 하더라도 학문으로서 성숙하면 자연히 이론지향성의 강화를 추구하게 된다. 사회복지학이 문제해결성 보다 상대적으로 학술지향성이 낮은 것은 학문의 역사가 일천하여 성숙이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학문으로서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술지향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즉 사회복지 학문은 사회문제 해결방법 뿐만 아니라 이론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순수사회과학과 응용사회과학은 상호의존적이며 응용사회과학이론의 축적이 순수사회과학의 발전에도 피드백(feedback)할 수 있다고 본다. 학술지향성의 관점으로 볼 때, 개인행위와 소집단에 초점을 두는 미시적 접근과 사회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두는 거시적 접근은 이론적 내적 일치성(inner consistency)이 부족하여 학술적으로 상호 친화성이 약하며, 오히려 각각의 접근방법은 사회학이나 심리학 등 인접 사회과학 학문과의 교류에 초점을 두고 학술성을 제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3. 학문방법의 분업 대 협업

(1) 통합(정합)의 입장: 이 입장은 학문 접근방법의 협업에 의하여 학문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사회복지학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지식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지식은 사회복지학에 통합되어야 한다. 여기서 학문의 협업이란 분과학문 내의 협업이다. 따라서 각 대학 내에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을 하는 전공단위가 학

과 내에 공존하여야 한다.

(2) 분리의 입장: 이 입장은 학문의 분업에 의한 역할의 분담으로 학문의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본다. 통합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다양한 학문을 모두 습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학회나 대학 간에도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의 어느 한 부분에 보다 중점을 둔 분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특정 학문 접근방법으로의 학회의 분화와 대학 특성화를 지지한다.

4. 사회과학 학문의 상호의존성 대 분과학문성

(1) 통합(정합)의 입장: 이 입장은 사회복지 학문과 학회 등 학문집단의 독립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과학 각 영역별 분과학문성을 지향한다. 분과학문 내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거시와 미시의 가능한 모든 학문적 방법을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입장은 다른 학문영역에서 볼 때, 학문집단 이기주의로 인식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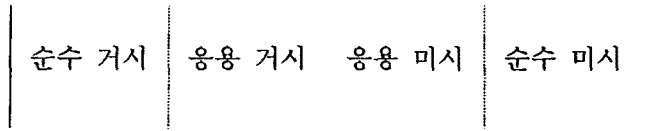
(2) 분리의 입장: 사회복지 학문의 독립성과 학문공동체의 독립성을 덜 강조하며 사회과학 각 분야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개별 학문 각각의 학술성과 문제해결능력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이 각 개별학문의 독점적 소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사회전체적으로 볼때, 개별 학문의 총체가 통합적으로 사회문제의 해결을 가져온다고 본다. 또한 학과의 통합에 의한 학부제를 지지한다.

<표 1> 접근방법의 쟁점들

쟁점		분리 입장	통합 입장
기본적 쟁점	정체성(내적 일치성과 외연)	구조-행위의 이중구조의 딜레마로부터 해방, 광역사회복지학 불인정	인간욕구의 통합성에 기초한 복지활동 탐구, 광역사회복지학 인정
부수적 쟁점	학술성 대 문제해결성	학술성 강조	문제해결성 강조
	학문분업 대 협업	학제간 협업	학문내 협업
	사회과학 학문간 상호의존성 대 분과학문성	상호의존성	분과학문 독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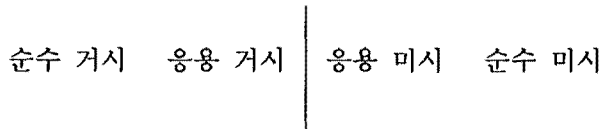
통합의 입장에서 본 학문의 경계(외연)는 다음과 같으며, 협의 사회복지학은 응용거

시와 응용미시를 포함하며, 광역 사회복지학은 순수거시와 순수미시 이론의 일정 영역까지 포함한다.



(* 광의 — , 협의 —)

한편, 분리의 입장에서 본 학문의 경계는 다음과 같으며, 사회복지학은 순수거시와 응용거시를, 사회사업학은 응용미시와 순수미시를 포함한다.



V. 사회복지 학문체계와 접근방법의 분류

다음의 논의는 사회복지학의 이중구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문 접근방법을 어떻게 규정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진다. 통합(정합)의 관점과 분리의 관점으로 나누어 학문체계와 접근방법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사회복지학의 학문체계를 분류한다면, 학문의 범위 또는 연구대상, 연구방법, 이론 체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접근방법의 삼분법과 분리독립방법을 기초로 위의 쟁점들을 토론하고자 한다.

1. 새로운 통합(정합)적 분류의 예: 3분법적 접근방법 등

접근방법의 삼분법은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사이에 중범위접근을 삽입하는 방법이다.

접근방법의 3분법은 중범위접근(mid-level approach)이란 절충적 또는 완충적 접근방법을 두어 미시와 거시 간의 대립과 차이를 극복하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중범위 접근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중개하는 기능을 하며, 특히 실천지향성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이러한 중범위 접근이 가능한 것은 사회복지학의 과정분석과 사회사업의 실천과정은 '구조-과정-행위'의 연속선 상에 위치하며, 철학적으로는 실용주의, 방법론적으로는 행태주의에 동시에 기반을 두고 있어 상호 친화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분류방법은 사회복지학의 전공분야와 하위학과(sub-department)를 사회복지

(social policy), 사회사업(social work), 서비스 매니지먼트(social service management)로 나누는 다수 영미 대학에서의 분류방식이다.

연구대상과 이론체계에서 거시, 중범위, 미시의 관계는 '구조-과정-행위'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 연구방법은 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의 다양한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3분법의 장점은 이분법 접근방법의 극단적 대립관계를 보완하여 연속적 관계를 갖게 한다. 3분법의 한계는 거시와 중범위, 중범위와 미시 간에 명확한 경계를 갖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표 2> 사회복지학 학문체계와 삼분법의 접근방법

학문체계	삼분법의 접근방법		
	거시적 접근	중범위 접근	미시적 접근
연구대상	사회제도와 정책	행정과정, 서비스 실천과정	임상사회사업
연구방법	실증주의, 비실증주의 (규범주의, 해석과학, 비판이론)	실증주의, 비실증주의	실증주의, 비실증주의
이론체계	일반이론: 복지국가론, 사회복지발전론, 비교사회복지제도론, 정책분야론: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택정책 등.	일반이론: 정책(실천)과정론, 정책분석론, 복지행정론, 서비스실천론, 사례관리론, 커뮤니티 케어론, 사회서비스분야론: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복지 등.	일반이론: 임상사회사업일반이론, 임상사회사업분야론: 가족치료, 의료사회사업, 정신의료사회사업, 학교사회사업, 산업사회사업 등.

그리고 실용주의 입장을 보다 강화한 단일화된 통합적 접근방법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거시와 미시 라는 기존의 분류체계를 벗어나 하나의 단일화된 접근방법 속에 기존의 접근방법을 포함하는 방법이다. 사회복지실천분야별, 예를 들면, 노인을 위한 사회정책분석과 프로그램실천, 아동을 위한 정책분석과 서비스실천 등이다. 이론체계는 거시와 미시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이론과 실천이론으로 나눈다.

2. 분리의 관점

접근방법의 이분법은 한국사회복지학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온 방법으로 독립학문으로서 사회복지학의 경계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이 관점은 하나의 독립된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이분법에 기초하여 사회정책학과 임상사회사업학을 독립학문으로 나누는 것이다. 연구대상, 연구방법, 이론체계라는 세가지 학문체계의 구성요소는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이라는 접근방법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의 범위 또는 연구대상은 거시적 분야로서 사회정책 관련 순수이론과 실천, 미시적 분야로서 사회사업 관련 순수이론과 실천으로 나누어진다. 연구방법은 실증주의 접근, 비실증주의적 접근(규범주의, 해석과학, 비판이론)이 있으며 이는 각각 접근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사회정책학의 이론체계에서는 순수이론분야로 복지국가론, 사회복지발전론, 응용이론분야로 사회정책분석론, 사회복지행정론 등으로 구분된다. 사회사업학의 이론체계에서는 인간행동과 가족에 관한 일반이론과 사회사업실천방법론, 사례관리, 서비스평가 등 응용이론이 나누어진다.

연구대상에서 거시와 미시의 관계는 사회구조 대 개인행위란 이분법의 관계이다. 연구방법에서 거시와 미시의 관계는 실증주의, 해석과학, 비판이론 등 연구방법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분석단위 상의 거시와 미시가 구분될 뿐이다. 이론체계에서 거시와 미시의 관계는 구조에 관한 이론과 행동에 관한 이론의 이분법이다.

이 분류형태는 분류방법이 단순명료하고, 구조와 행동이란 사회과학의 전통적 분류방법에 부합한다. 전통적인 이분법 구조의 한계는 거시와 미시를 연결하는 내적 일치성이 부족하므로 아예 학문을 분리하여 이러한 이론적 딜레마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다. 대상인구별 실천분야에서는 거시와 미시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러한 학문분야의 연구대상과 이론체계를 이 분류방법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 실천분야론은 접근방법의 분류체계상 두 분야로 나누어지게 된다. 따라서 장점으로는 학술지향성의 강화, 학문분업, 사회과학 상호의존성 증진을 들 수 있고, 단점으로는 문제해결의 통합성 저하(단편성), 학문협업의 예로, 분과학문 당파주의 등이 지적된다.

3. 접근방법 통합/분리의 의미

통합적 접근이란 결국 학문 접근방법의 다양한 형태의 공존 속의 분화를 인정하는 동시에, 거시와 미시가 통합- 또는 정합-될 수 있는 것은 중간적 수준의 접근방법의 유기적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삼분법 외에도 접근방법의 4분법이나 새로운 분류도 가능하다. 사분법에서는 순수거시 - 응용거시 - 응용미시 - 순수미시 로 분류될 수 있다. 사회복지학 학문체계의 현재 상황에서는 삼분법이나 사분법 등 특정 분류방법이 타당하다고 규정하기 보다는 사회복지학 접근방법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한국적 모형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접근방법의 분리는 이분법의 접근방법 별로 학문집단(학회 등)과 대학내 학과의 분리 가능성 의미한다. 학문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결정은 개별 대학과 연구자의 학문취향의 선택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선택은 사회복지학계의 주류인 기존의 학문체계에 도전이 되기도 하겠지만 장기적으

로는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학문 접근방법의 분류체계는 필연적으로 교육체계와 실천현장에 연계되어 영향을 미친다. 첫째, 사회복지교육에서 다음의 함의를 갖는다. 학문 접근방법을 삼분법으로 전환한다면,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면 중범위 접근방법으로 대상인구별 교과목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대학의 성격도 교육내용의 차별화로 특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가령, A대학은 거시이론과 응용분야를 강조하고, B대학은 미시이론과 응용분야를, C대학은 거시와 미시의 응용분야를 통합하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실천에서도 다음의 함의를 갖는다. 학문 접근방법을 3분법으로 전환하면 실천과정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론과 실천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하며, 연구지향적 실천(research-minded practice) 또는 실천지향적 연구(practice-minded research), 분석과 실천이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VI. 통합적 접근의 연구방법과 이론체계에 대한 함의

학문접근방법의 통합/분리 논의는 연구대상의 특성(거시분야 또는 미시분야)에 초점을 둔 것이지만, 연구방법과 이론체계에도 연계되어 있는 학문체계의 복합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임은 머리말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학문접근방법의 통합주의가 연구방법과 이론체계에 대하여 갖는 의미를 논한다.

1. 통합적 접근의 연구방법에 대한 함의

사회복지 분야는 전통적으로 경험주의에 기초하여 발전하여 왔으며 연구방법상 주류 사회과학의 실증주의적 전통을 쉽게 받아들였다. 특히 미국에서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은 수십년 동안 빈곤, 보건, 노년, 아동, 지역사회 등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회현상의 탐구에 과학적 방법과 원리를 적용하여 왔으며, 대학의 교과과정에도 리서치방법에 관한 주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초 Heineman Pieper의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 이후 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 간의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¹⁸⁾ 이러한 실증주의의 풍미와 비판의 경향은 사회복지 분야에 나타나기에 앞서 이미 과학철학 일반의 경향이 되어있고, 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 간의 갈등은 국제적으로 진정되었으며 실증주의의 독점적 지위도 붕괴되었다. 과학철학의 새로운 경향은 인식론적 다원주의(epistemological pluralism)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실증주의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지적 흐름은 실증주의를 완전히 버리기 보다는 실증주의의 장점과 비실증주의를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난 지적 다원주의와 일치한다. 즉 사회사업 리서치의 새로운 모형은 다양한 질적방법의 모형들을 수용하게 되었고, 또한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의 효과적인 통합 또는 정합(整合)은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의 다양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¹⁹⁾

18) Frederic G. Reamer,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Social W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p.119-153.

연구방법 상의 이러한 지적 다원주의가 학문접근방법의 통합 논의에도 함의를 갖고 있음은 물론이다. 모든 진리가 경험에 의하여 검증될수 있다는 고전적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수학적 논리를 중시하는 '논리적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²⁰⁾와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의 본질적 차이를 강조하며 사회과학자의 가치중립성을 부정하는 비실증주의 간 패러다임의 갈등과 반목은 상대방의 학문입장에 상처는 줄지언정 결코 생산적인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식할 때, 다학문성을 지니고 있고 미시와 거시의 다양한 학문접근방법을 포괄하는 사회복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근래에 도래하고 있는 인식론적 다원주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인식론적 다원주의는 사회복지학의 다양한 연구목적과 연구주제와 매우 친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식론적 다원주의는 각 연구방법과 이론간 내적일치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론적 내적 일치성 보다는 실천적 내적일치성, 문제해결성을 강조하는 학문접근방법의 통합주의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접근방법 통합주의 입장은 다양한 지적 도구를 수용하는 인식론의 통합주의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연구방법 상의 패러다임 갈등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접근방법과 연구방법에서 제시되는 양 통합주의 입장은 기존의 접근방법이나 이론을 대체하기 보다는 절충적 입장이며, 앞의 IV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은 학문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거대이론(grand theory)이나 인식론적 통합의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문접근방법간의 갈등이 지적 다원주의에 기초한 통합적 접근에 의하여 다소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미시-거시의 이중구조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안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통합적 접근의 이론체계에 대한 함의

사회복지학의 이론체계에서 학문접근방법의 통합주의는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 위에서 언급한 연구방법 상의 인식론적 다원주의가 다양한 사회복지학의 이론체계에 적용될 수 있는가? 인식론적 다원주의는 다양한 사회복지 리서치에 적용될 수는 있지만 이론구축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욕구조사, 프로그램평가, 단일사례연구 등에서 인식론적 다원주의가 적합할 수 있지만, 행동지향적 평가이론과 같이 명백한 이론적 편향(bias)을 지닌 경우는 다원주의가 적용되기 어렵다.²¹⁾ 거시 분야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가령 행태주의적 분석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복지국가 이론- 충분하게 존재한다. 이와 같이 거시든 미시든, 연구방법상 명백한 편향을 지니는 이론분야는 통합적 접근이 어렵다고 본다.

한편, 이론체계의 분류 측면에서 사회복지학의 이론을 다소 거칠게 구분한 전통적 방법에 의하면, 사회정책의 이론과 사회사업의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정책의 이론도 순수이론분야와 실천이론분야로 나눌수 있고, 사회사업의 이론도 순수이론분야와 실천이론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학문접근방법의 통합주의는 이들 네가지 분야중 실

19) Ibid., p.150.

20) John Hughes, *The Philosophy of Social Research*, 2nd ed., Longman, 1990, pp.36-41.

21) Reamer, op.cit., pp.151-2.

천이론분야의 통합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사회정책의 정책과정론과 사회사업의 실천과정론이 학문내의 협업이 가능한 분야인 것이다.²²⁾ 이에 따라 거시와 미시의 실천분야를 통합하는 중범위 수준의 이론체계가 새롭게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 현상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규범적 이론 분야가 응용실천학문인 사회복지학 이론체계에 포함되느냐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는 점이 통합적 접근이 갖는 한계이다.

Ⅶ. 결 론

이 글에서 필자는 접근방법 논의의 두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학문의 토착성에 관한 것(Ⅲ절), 둘째는 학문의 내적 일치성에 관한 것(Ⅳ,Ⅴ절)이다.

첫째, 한국에서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이란 학문 접근방법의 논쟁은 학문의 보편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역적 특수성의 문제이며, 특히 우리의 경우는 영미학문과 대륙학문이란 지역학문의 특수성이 혼합하여 초래하는 문제임을 논증하였다. 접근방법을 분류하고 각 분류항목을 독립된 단위학문으로 인정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는 각 국가의 고유한 문제이며 토착적인 문제이다. 한국사회복지학의 과제는 접근방법의 정합구조를 한국적인 형태로 토착화시키는 것이다. 즉 한국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은 일차적으로 접근방법의 토착적 정립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에 관한 통합(정합)과 분리의 입장이 경쟁하는 한국사회복지학의 현 수준에서 통합(정합)의 입장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접근방법의 새로운 정합적 형태에 있어 학문체계상의 내적일치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문의 접근방법 분류체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접근방법간의 현저한 간격을 줄이고 응집력있는 연속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삼분법이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라고 본다. 또한 삼분법적 정합구조 내에서도 이론체계와 연구방법의 내적 체계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통합적 접근이 학문의 내적 일치성과 정체성을 현저하게 향상시킬만한 이론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한편, 이분법적 분리독립의 입장은 각각의 접근방법 그 자체로서 분과학문으로서의 내적일치성을 보다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국사회복지학의 형성과정에서 주류가 되지는 못하였으며 연구자의 학문적 정향의 분포 상에서도 대세로 형성되지는 못한 소수 학문집단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학문공동체는 학문방법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일부 대학이나 학문집단(학회)이 자율성의 관점에서 분리된 접근방법의 학문적 심화를 지향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이 글은 학문 접근방법의 논의를 통하여, 사회복지학의 통합적 접근방법이 어떠한 형태의 정합구조를 지향하든 학문의 이중구조에 내재하고 있는 본질적 문제를

22) 조홍식은 사분법 분류를 바탕으로 사회사업실천론과 행정론을 통합하는 중도적 접근은 극단적인 이분법적 괴리를 해소하는 통합적 모델이라고 주장하였다. 조홍식, "한국사회복지학 교육체계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 학문 및 교육체계의 동향과 전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5.10., p.32.

극복하는 효험있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이러한 문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 학문공동체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정합구조의 합의가 학문의 토착성이며 한국사회복지학 학문 정체성 확립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사회복지학의 실천사회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거시-미시 접근의 통합을 주장하는 입장은 결국 순수이론과의 접목을 강조하는 입장을 다소 유보하면서 인간육구의 통합성에 기초한 이론과 실천의 내적일치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나아가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육구와 관련된 사회보장,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외 주택, 교육, 환경, 법률 등 사회복지 관련 각 분야에서 인간서비스의 영역을 개발하고 확대하여 미시와 거시의 영역이 통합될 수 있는 실천영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통합주의의 경향은 기존의 거시와 미시라는 분류체계 외에 중범위접근과 새로운 하위 학문단위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끝으로, 우리 학계를 위한 제언은, 지적 다원주의가 사회과학계의 국제적 학술의 동향임을 감안하면, 응용과학의 성격을 강조하더라도, 사회복지학 내에서 순수이론 지향의 학문접근을 포함한 학문 접근방법의 다양성을 인정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대학과 연구자공동체의 자율성을 인정할 때 학문의 분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거시-미시 접근방법 대립의 이중구조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우리 학계에 요구되는 것은 자율적 학문의 기초 위에서 학문당파주의 보다는 다양한 접근방법간 항상 대화할 수 있는 개방성이라고 생각된다.